

# “과외활동·에세이에서 리더십·열정 못 보이면 SAT 만점자라도 탈락”

제니 김 존스 홉킨스 입학사정관

“존스 홉킨스 대학의 경우 과외활동을 평가할 때 포인트 시스템이 아닌 포괄적 평가를 통해 우열을 가리게 됩니다”

이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제니 김씨(사진)는 “입학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서에 나타난 GPA와 SAT 점수로 이를

바탕으로 다음 심사로 넘어갈 후보군을 골라낸 다”며 “물론 이 과정에서 AP 등 도전적인 과목들에 대해서도 세심히 살핀다고 전했다.

기존 GPA만 입학사정에서 지원서를 검토할 때 대학이 정해 놓은 최소 학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심사도 받기 전에 아예 탈락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예시로 GPA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예기다. 물론 여기에는 SAT 점수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때문에 일단 GPA와 SAT 점수는 높아야 한다는 것이 된다는 게 김씨의 조언이다.

김씨는 또 “그 다음에 과외활동과 에세이를 통해 각 입학사정관들이 선별한 후보군을 다른



입학사정관들이 선별한 후보군들과 비교하면서 토론과정을 통해 합격자를 가려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외활동과 에세이 심사에 대해 김씨는 “입학사정관마다 평가하는 스타일이 다른데, 내 경우에는 과외활동과 에세이를 함께 검토하면서 리더십과 열정이 얼마나 묻어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지만, 다른 사정관들은 둘 중 하나를 먼저 살피고, 다음 것을 보기도 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과외활동과 에세이에서 리더십과 열정이 확실히 발견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각종 클럽 활동에서 회장직을 5개나 맡았어도 에세이에서 그 같은 활동에 결맞은 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없다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들 때문에 GPA가 아무리 높고, SAT 점수를 만점을 받았어도 합격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김씨는 설명했다.

## 얼마나 많이 했나보다 ‘질’ 이 중요

인턴십·봉사활동 어떻게 <1면서 계속>

또 연구기관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활동을 했고, 감독자가 가까이 추천서까지 써줬다면 이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자원봉사 역시 마찬가지다.

내가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런데 그냥 여기저기서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많은 수험생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는 단지 지원서 작성을 위한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환경을 바탕으로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는지를 먼저 고안해 봐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중심에 서서 준비하고 실행해 그 결과가 나타나 주면 가장 좋다.

예를 들면 자신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하면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어린 학생들을 돕기 위해 직접 클럽을 만들어 활동

했다면 훌륭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리더십은 물론, 열정, 헌신이 골고루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 개수의 문제

항상 궁금해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과외활동의 양이다.

이에 대해 제니 김 입학사정관은 개수 보다는 깊이가 중요하며, 그렇다고 어느 특정한 것 하나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인턴십 하나에 매달려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보다는 인턴십과 함께 다른 활동들도 균형 있게 참여하고 헌신한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실제로 많은 수험생들의 과외활동 내용을 보면 갈수록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스펙 경쟁에서 밀릴 수 있는 게 현실이다.

개수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은 10개를 했어도 그 안에 자신이 리더가



과외활동은 일정과 리더십이 담겨 있어야 하며 이는 에세이와도 무관하지 않다. 환경미화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학생들. (AP)

아니고, 열정과 헌신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보다 훨씬 적은 활동을 깊이 있게 한 지원자에 비해 좋은 평가

를 받기 어렵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흥미와 관심도 없으

면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 이곳저곳을 기웃거린 것 같은 모습은 결코 좋은 과외활동이 될 수 없다.